

#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요인 탐색을 위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 Meta-analysis for Exploring Predictors of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Youth in South Korea

김신아, 방은혜, 한윤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Shinah Kim(shinahkim@skku.edu), Eunhye Bang(eunhae@skku.edu),  
Yoonsun Han(yoonsunhan@skku.edu)

### 요약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상시적으로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사이버환경, 폭력경험 등과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알아보았다. 국내학술논문 검색사이트(RISS)를 이용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학술지계제 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사이버따돌림', '사이버폭력', '사이버괴롭힘', '온라인 및 SNS 또래괴롭힘' 이란 검색어로 선정된 총 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 폭력경험 변인이 중간 크기의 효과(0.28~0.29)를 나타냈고 또래, 가정, 사이버환경, 학교변수 순으로 작은 크기의 효과(0.08~0.13)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한 교육적,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마련과 직접적인 예방 및 개입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중심어 : | 사이버불링 | 메타분석 | 청소년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sizes of personal, family, peer, school, cyber environment, experience of bullying/victimization factors on cyberbullying perpetrating behavior among students in Korea using meta-analysis. Published academic journals and master/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10.01.01 to 2016.10.31 were identified using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data base. Keywords for search were cyberbullying, cyber-exclusion, cyber-violence, cyber-harassment, online/SNS peer harassment. A total of 43 studies were selected for meta-analysis. Personal factors and experience of bullying/victimization showed moderate effect sizes(0.28~0.29) and peer, family, cyber environment, school domains showed small effect sizes(0.08~0.13). Results of the study may be used to guide effective prevention or intervention strategies against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 keyword : | Cyberbullying | Meta-analysis | Adolescent |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5R1C1A2A01055203)

접수일자 : 2017년 01월 19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7년 2월 10일

교신저자 : 한윤선, e-mail : yoonsunhan@skku.edu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일상화된 오늘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더 발전된 형태의 괴롭힘이 등장했다. 그것은 바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다. 사이버불링은 인터넷 또는 디지털 커뮤니티 기기를 사용하여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1]. 다수의 사람이 한 명의 피해자에게 가하는 모빙(mobbing), 오프라인불링과 사이버불링이 함께 자행되는 멀티불링, 온라인에서의 싸움을 현실에서 이루는 ‘현피(現實+Player kill)’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사이버불링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 문제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하였고, 재미나 장난삼아 이뤄지는 사이버불링은 피해 청소년에게 자살시도와 같은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음이 보고되었다[2].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한 청소년 또래문화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단체카톡방,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사이버불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1][3][4]. 또래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따돌림을 받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도 발생하고 있다[5].

이러한 사이버불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일상화와 함께 새롭게 부각된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해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급증하면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6]. 사이버불링이 발생시키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려는 시도를 비롯하여 몇몇 국가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구체화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4개 주가 반불링 법안(anti-bullying laws)을 제정하였고[7], 독일에서도 법률적 대응 외에 시민단체와 경찰, 정부기관 등에서 사이버불링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9]. 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따돌림’이란 개념이 추가되면서(2012년 3월)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괴롭힘에 비해 발견과 인지가 어려워 그 심각성은 더할 수 있다. 즉,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가상공간, 비대면성으로 인해 괴롭힘의 발견 및 인지가 어렵고,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즉시 위해가 가능하며 신속하게 확산된다[7]. 이러한 특성이 가해자의 재미와 보복, 우월감과 같은 목적달성을 더 유리하게 해주고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 결과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기 쉬워지고 텍스트와 이미지가 무제한적으로 복제 가능해 짐으로써 희생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은 지속적이고 심각하다. 또한 사이버불링은 완전삭제가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첩될 수 있어 가해/피해자 모두의 공격성이 증폭되므로 폭력의 지속가능성이 높다[8]. 이러한 지속성과 가시성은 더 많은 참여자들이 사이버불링을 목격하거나 괴롭힘에 개입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그것들을 생활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오늘날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9], 청소년 사이버불링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은 독립적인 청소년 문제가 아닌,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바라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0]. 공갈이나 금품갈취, 폭행과 같은 전통적 학교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쁜 학업 스케줄로 인해 친구들과 면대면 상호작용은 줄고 시공간을 초월해 24시간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사이버불링이 점점 진화된 학교폭력의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심각해지고 있다[11]. 즉, 소셜미디어가 새로운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사이버불링은 학교폭력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며, 학교폭력의 새로운 도구로 등장한 사이버불링을 주제로 한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전반적인 일탈적 행위

관점에서 사이버폭력이나 사이버비행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2][13]. 학교폭력에 기반을 두고 사이버불링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국외 연구[1][14]와는 달리 기존 국내 연구는 인터넷의 역기능 현상 및 정보통신 기기의 일탈적 사용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현상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차츰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가 청소년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되어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가리키게 되었다[4]. 이에 사이버불링 관련 요인을 탐색하려는 노력으로 개인[15][16], 가정[17], 또래[18], 학교[19] 및 매체환경[20][21] 등 다양한 생태체계 변인들을 중심으로[22][23] 개별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요 관련 변인들의 효과성에 대해 종합적인 조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즉 국내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아직은 시작단계로 국외 연구에 비해 충분하지 않으나,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등 그 피해가 만연해지고 일상화 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사이버불링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 및 이해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이용해 사이버불링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함으로써 사이버불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불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해경험에 대한 접근 즉, 사이버불링의 원인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관련 요인을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사이버환경, 폭력경험으로 구조화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사이버불링의 결과가 가져올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돕고,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경험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인들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관련 변인들을 다룬 개별연구들의 양적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효과크기를 통계적으로 종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대한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사이버환경, 폭력경험 각 하위 변인군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고찰

### 1. 사이버불링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은 단순히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연이어 발생하는 사이버불링 피해 학생의 자살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는 '한공주', '소셜포비아', '우아한 거짓말' 등과 같은 대중영화의 주된 소재로 등장하고도 있다.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고등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14.6%가 사이버불링 피해를, 6.3%가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을, 13.1%는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2]. 최소한 세 명 중 한명 꼴인 34%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에 연루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 2차 조사부터 2014년 1차 조사 때까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사이버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24]. 즉, 스마트폰 보급률 및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사이버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의 스마트폰 보유현황 보고에 따르면 중학생의 86.6%, 고등학생의 90.2%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생의 28.5%, 중학생의 73.1%, 고등학생의 79.3%가 SNS를 이용한다는 조사결과를 통해서도[25]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앞서 제시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으나 사이버불링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이 쉽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관심 및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불링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국외의 경우 사이버불링이라는 용어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일반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불링의 개념이 외국에 비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4][10]. 국내 연구들은 주로 사이버범죄 관점에서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집단따돌림의 관점에서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2010년 이후 사이버불링이란 용어사용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불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익명성 또는 관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청소년의 온라인상 행위에 초점을 두거나[26] 집단따돌림의 새로운 유형으로써 사이버불링에 대한 접근[27]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익명성을 고려한 개념이라면 가해자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사이버폭력이나 사이버괴롭힘(online harassment)이,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적 속성에 기반을 두어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 초점을 둔다면 사이버불링이 적절할 것이다. 10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Wolak 등[28]의 연구에서도 알고 있는 또래에 의한 온라인 괴롭힘이 단지 온라인에서만 접촉하는 상대에 의한 괴롭힘 보다 공격적, 반복적, 그리고 힘의 불균형을 포함하는 학교폭력(bullying) 개념과 흡사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사이버불링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사이버폭력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사이버불링에 관여한 청소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판이나 인기와 지위를 놓고 경쟁하거나 관심을 갈구하고 유명세를 얻고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 비난을 통해 인기를 획득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또한 거짓이나 사적이고 악의적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뒷담화를 이용하여 자신을 타인과 분리하거나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사이버불링을 함으로써 만족감,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얻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한다[29]. 이러한 사이버불링은 가해자에게는 보복, 우월감, 재미 등을 주지만, 피해자에게

는 심리·사회적 혼란은 물론이며 학교적응문제와 비행 등 다양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사이버불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가해행위에 취약한 청소년의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사이버환경, 폭력경험 등의 특징을 파악하고 사이버불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관한 연구현황

사이버불링은 청소년기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피헤이든 가헤이든, 사이버불링 경험은 자살이나 우울 등 정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학업중퇴 및 가출과 같은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높기 때문에 중대한 사회문제라 다루야 한다[1][14]. Hinduja와 Patchin[30]은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학교폭력과 비행을 포함한 여러 부정적 발달에 대한 위험요인임을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불링은 일회적인 사건이기 보다는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괴롭힘을 수반하기 때문에[30] 청소년기로 국한되기 보다는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절실하지만, 지금까지 양적, 질적으로 발전 되어온 학교폭력 연구에 비해, 사이버불링에 관한 연구는 축적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이버불링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탐색하는 것은 추후에 실시될 연구들의 양적, 질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또래, 학교, 사이버환경, 그리고 폭력(피해)경험 요인 등으로 범주화 되는 각각의 변인이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왔다.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감, 자아존중감, 우울, 감각추구성향, 자기통제력, 공격성, 정서조절, 충동성[17][20][31-34] 등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낮을수록, 감각 추구 성향이 적을수록, 자기통제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가능성이 적다.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부모와의 갈등,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감독[31][35][36] 등이 예측변인으로 보고되었다. 또래관련 요인에서는 친구관계, 비행친구 수, 또래영향

[17][18][37] 등이, 학교환경 관련해서는 학교만족도, 학교의 폭력 환경, 학교부적응, 교사 및 교우관계, 학교성적 및 학업스트레스[19][36][38] 등으로 학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사 및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사이버환경 요인으로는 미디어 중독, 인터넷 접근성, 이용시간, 능숙성, 게임시간, 디지털 리터러시[20][37][39][40] 등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폭력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폭력경험을 포함하여, 사이버상에서의 불링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오프라인 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은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15][16][41-43].

이처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관련 변인을 탐색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변인들의 개별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지만,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사이버불링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여러 변인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개인 또는 가족, 학교, 사이버 환경 요인 등 각 연구에서 사이버불링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다[22][23][42][44]. 따라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사이버환경, 폭력경험 등의 영역에서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선정 기준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청소년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대한 예측요인을 다룬 연구들이다. 데이터는 국내 학술논문 검색사이트(www.riss.co.kr)를 통해 종속변수로 ‘사이버불링’, ‘사이버따돌림’, ‘사이버폭력’,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괴롭힘’, ‘SNS 또래괴롭힘’으로 검색하여 나

오는 논문을 수집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사이버불링이란 용어 사용이 본격화 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이버불링을 사이버폭력[22][33][40]과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이를 번역하여 사이버괴롭힘[36][43] 또는 사이버따돌림[27]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이버불링과 조작적 정의가 유사한 SNS괴롭힘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10][44] 이를 고려하여 검색어를 선택하였다.

메타분석에 포함하기 위한 논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사이버불링 용어 사용시기와 사이버불링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를 고려하여[4],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아는 사람에 대한 사이버불링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이버불링 연구 모두 포함시켰다. 셋째, 초·중·고등학생 대상 논문들로 한정하였다. 넷째, 질적연구, 문헌연구, 실험연구 등을 제외하고 효과크기를 산출 할 수 있는 표준화 회귀계수 값( $\beta$ 값)이 제시된 조사연구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보고서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지침인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flowchart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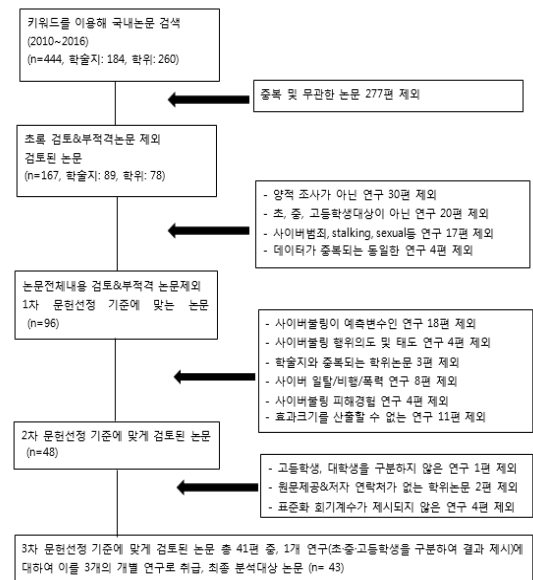


그림 1. 논문 검색 및 선정과정에 대한 PRISMA flowchart

## 2. 코딩 및 자료 분석

### 2.1 문헌 코딩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대하여 다양한 예측변인들이 연구되었으나, 각 논문들의 효과크기 산출을 위해 코딩된 변수들을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사이버 환경, 폭력 경험의 6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개별 변인들은 동일한 하위변인군으로 통합 및 분류하여 부호를 통일하였다. 예를 들면, 폭력경험변인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 가정폭력 피해경험 등의 개별 변인으로, 가정변인은 소득 및 부모학력, 부모자녀갈등, 부정적·긍정적 양육방식, 가족애착,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생활만족 등의 개별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개별 변인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하위변인군으로 통합하였다. 그 중 효과크기의 방향성을 통일하기 위해 개별  $\beta$ 값의 절댓값을 사용하였다. 아동청소년학과 대학원생 2인과 교수 1인으로 구성된 연구자 3인이 논문 전문을 검토하여 대상 논문을 엄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코딩 양식을 개발하여 각 문헌을 함께 검토하며 동시 코딩을 진행하였다. 하위집단 구성과 방향성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자 3인이 검증하였다. 문헌코딩과정에서, 표준화 회귀계수가 제시되지 않고 상관만 제시된 연구 1편[38]에 대하여 상관을 표준화 회귀계수로 변환하는 작업[ $r = \beta + 0.5\lambda$  ( $r$ 값이 음수이면  $\lambda = 0$ ,  $r$ 값이 0 또는 양수이면  $\lambda = 1$ )] [45]을 시행하였다. 분석대상 전체 41편의 논문 중, 초·중·고등학생을 각각 분리하여 결과를 제시한 연구 1편[42]에 대하여 학교급에 따라 각 3개의 개별연구로 취급해 분석에 포함시켰다. 또한 매개 또는 조절효과와 같은 동일 변인에 관한 여러 값을 제시한 연구 6편[31][33][43][46-48]에 대해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자료분석 및 효과크기 산출방법

자료 분석은 STATA 1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큰 연구가 작은 연구에 비해 모수치를 더 정확히 추정한다. 이에 가중치가 부여된 평균 효과크기 계산을 위하여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 $\beta$ 값)를 표

본크기에 따라 가중치를 산출한 후, 이 값을 정규분포를 따르는 Fisher's  $z$ 값으로 변환하였다. 따라서 입력 변수로  $z_r$ (표준화된 상관계수)와 표준오차(효과크기 분산의 제곱근)를 사용하였다.

효과크기 분석을 위해서 먼저 연구들의 결과 값을 통합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연구들이 동일한 모집단 효과를 가정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메타분석의 통계적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49]. 통합연구물의 효과크기간 동질성 검증을 시행하여, 개별연구들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무선평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동질성이 확인될 경우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할 것이다.

동질성검증(homogeneity test)을 위해서 Cochran's의 Q통계치( $\chi^2$ 검정)와 연구 간 이질성(heterogeneity)을 나타내는 지수인 Higgin's[50]의  $I^2$ 값을 사용하였다. Q통계치는  $\chi^2$  분포에 근거하여 영가설(연구간 분산은 = 0 또는 모든 연구의 모집단 효과크기는 동일하다)을 검증한다. Q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이는 영가설이 기각된 것으로, 포함된 모든 연구 모집단의 효과크기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49]. 또한 이질성에 대한 판단은 총 분산에 대한 실제분산 비율인  $I^2$  값이 25%이면 낮은 이질성, 50%이면 중간크기, 75%면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50]. 효과크기(effect size)는 전체효과 검정과 95%신뢰구간(CI)으로 판단하였고,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하였다.

### 2.3 출판편의 검증

출판편의(publication bias)를 점검하기 위해 funnel plot을 사용하였는데, 시각적 확인뿐만 아니라, funnel plot의 비대칭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Egger test결과를 보았다.

## IV. 연구결과

### 1. 분석 대상 문헌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43편 논문의 특성은 [표 1]에 제시

표 1. 분석대상 논문의 특징

| No | 연구자                     | 출판년도 | 출판유형 | N      | 학교급   | 관계성    |
|----|-------------------------|------|------|--------|-------|--------|
| 1  | 김경은, 윤혜미                | 2012 | 학술지  | 1,303  | mixed | 둘다     |
| 2  | 김봉섭, 박종선, 감동은, 진상기      | 2013 | 학술지  | 1,260  | mixed | 모르는사이  |
| 3  | 김부경, 한윤선                | 2016 | 학술지  | 375    | 초     | 상호아는사이 |
| 4  | 김종길                     | 2013 | 학술지  | 240    | mixed | 모르는사이  |
| 5  | 김혜영, 민정식                | 2014 | 학술지  | 919    | mixed | 모르는사이  |
| 6  | 남상인, 권남희                | 2013 | 학술지  | 281    | 중     | 모르는사이  |
| 7  | 노성호, 김소라                | 2015 | 학술지  | 1,135  | 중     | 상호아는사이 |
| 8  | 신나민, 안화실                | 2013 | 학술지  | 1,036  | mixed | 불분명    |
| 9  | 신소라, 정익률                | 2015 | 학술지  | 11,964 | mixed | 모르는사이  |
| 10 | 안수빈, 이강이                | 2014 | 학술지  | 611    | 중     | 상호아는사이 |
| 11 | 오인수                     | 2014 | 학술지  | 1,065  | mixed | 불분명    |
| 12 | 이아름, 이윤주, 양현일           | 2014 | 학술지  | 122    | 초     | 불분명    |
| 13 | 이인태                     | 2012 | 학술지  | 720    | 초     | 상호아는사이 |
| 14 | 전신현, 이성식                | 2010 | 학술지  | 700    | 중     | 불분명    |
| 15 | 최민음, 금현수, 정은정, 김효은, 이정기 | 2012 | 학술지  | 740    | mixed | 둘다     |
| 16 | 최진오                     | 2015 | 학술지  | 970    | 초     | 둘다     |
| 17 | 최현, 백지숙                 | 2015 | 학술지  | 404    | 중     | 불분명    |
| 18 | 강세연                     | 2015 | 학위논문 | 246    | 중     | 모르는사이  |
| 19 | 구철영                     | 2015 | 학위논문 | 270    | 중     | 모르는사이  |
| 20 | 김소리                     | 2015 | 학위논문 | 11,956 | mixed | 모르는사이  |
| 21 | 김수진                     | 2015 | 학위논문 | 415    | 중     | 둘다     |
| 22 | 김영미                     | 2015 | 학위논문 | 378    | 중     | 둘다     |
| 23 | 김은경                     | 2012 | 학위논문 | 278    | 중     | 둘다     |
| 24 | 김진호                     | 2015 | 학위논문 | 464    | mixed | 모르는사이  |
| 25 | 김태용                     | 2016 | 학위논문 | 401    | 중     | 둘다     |
| 26 | 김현정                     | 2014 | 학위논문 | 375    | 중     | 모르는사이  |
| 27 | 나혜연                     | 2016 | 학위논문 | 570    | 고     | 모르는사이  |
| 28 | 박수현                     | 2015 | 학위논문 | 391    | 중     | 모르는사이  |
| 29 | 박예슬                     | 2016 | 학위논문 | 315    | 중     | 둘다     |
| 30 |                         |      |      | 233    | 초     |        |
| 31 | 박옥식                     | 2015 | 학위논문 | 340    | 중     | 모르는사이  |
| 32 |                         |      |      | 327    | 고     |        |
| 33 | 박은주                     | 2013 | 학위논문 | 398    | 중     | 모르는사이  |
| 34 | 백문숙                     | 2015 | 학위논문 | 601    | mixed | 모르는사이  |
| 35 | 소리나                     | 2016 | 학위논문 | 626    | 중     | 모르는사이  |
| 36 | 신소라                     | 2015 | 학위논문 | 11,956 | mixed | 모르는사이  |
| 37 | 원다현                     | 2011 | 학위논문 | 711    | mixed | 모르는사이  |
| 38 | 유환희                     | 2015 | 학위논문 | 473    | 중     | 둘다     |
| 39 | 이아름                     | 2014 | 학위논문 | 552    | 초     | 둘다     |
| 40 | 이인혜                     | 2014 | 학위논문 | 487    | mixed | 모르는사이  |
| 41 | 이향순                     | 2014 | 학위논문 | 575    | mixed | 모르는사이  |
| 42 | 정소미                     | 2011 | 학위논문 | 660    | mixed | 모르는사이  |
| 43 | 정여진                     | 2016 | 학위논문 | 344    | 중     | 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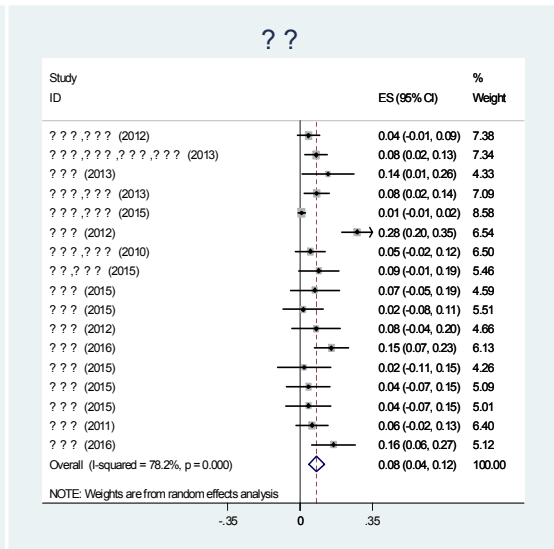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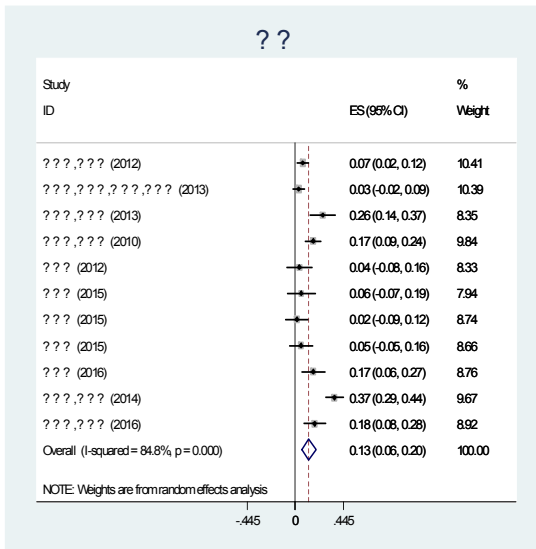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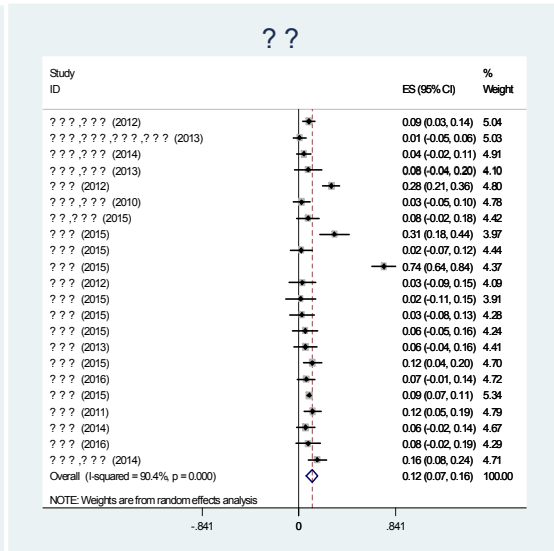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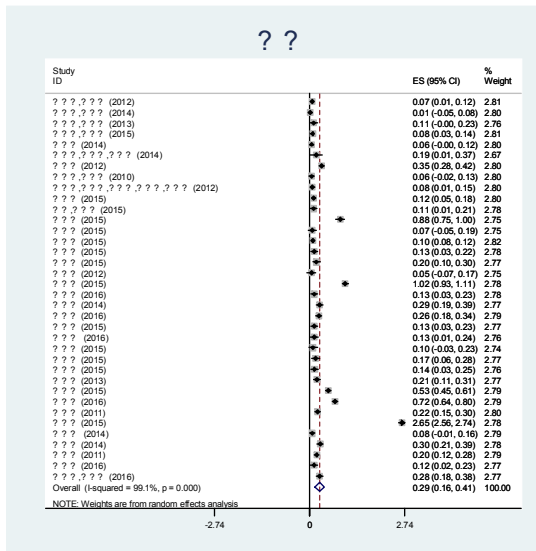
하였다. 학술지 게재 논문이 17편(39.46%), 학위논문이 26편(60.47%) 이었다. 하위변인군 별로 살펴보면, 개인 변인을 다룬 논문이 36편(8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정환경 22편(51.16%), 사이버환경 21편(48.84%), 학교변인이 17편(39.53%), 폭력경험 16편(37.21%), 마지막으로 또래변인이 11편(25.58%)으로 가장 적었다. 학교급은 중학생 대상 연구가 19편(44.19%)

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고를 함께 대상으로 한 연구가 16편(37.21%), 초등학교생이 6편(13.95%), 고등학교 연구가 2편(4.65%)으로 가장 적었다. 사이버불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성 즉, 익명성의 측면에서는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를 함께 측정한 연구가 11편(25.58%), 모르는 사이가 23편(53.49%), 상호 아는 사이가 4편(9.30%), 관계성을 알 수 없는 연구가 5편(11.63%)이었다.

## 2.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사이버환경, 폭력경험 변인군 간 효과크기

먼저, 분석대상의 효과크기 간 동질성(homogeneity) 검증 실시결과, 모든 변인군의  $I^2$ 가 70%이상으로 개별 연구간 효과크기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각 연구의 효과크기들이 가지는 분산이 표집오차로 인한 연구내분산과 연구특성의 차이로 인한 연구간분산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는 무선

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하위변인군 별 통합 연구들의 효과크기 검증결과에 대한 forest plot은 [그림 2]와 [표 2]에 요약하였다. Forest plot에 제시된 병합된 각 효과 크기는 세로의 점선으로 표시된 값이며, 마름모 모양으로 제시된 95%신뢰구간이 각 하위변인군(개인, 가정, 또래, 학교, 사이버환경, 폭력경험)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들을 종합한 효과크기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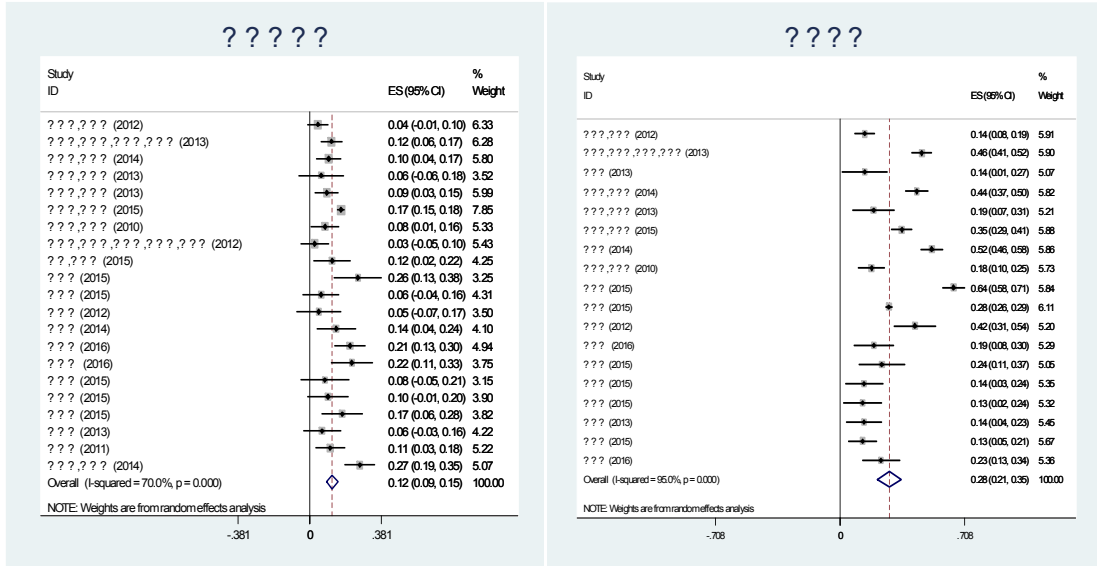


그림 2. 하위변인군 별 forest plot

분석결과 모든 하위변인군 별[폭력경험:  $Q=337.27$ ,  $p < .001$ ], (개인:  $Q=3777.06$ ,  $p < .001$ ), (가정:  $Q=219.77$ ,  $p < .001$ ), (학교:  $Q=73.30$ ,  $p < .01$ ), (또래:  $Q=65.94$ ,  $p < .01$ ), (사이버환경:  $Q=66.56$ ,  $p < .01$ )] 연구 간 분산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효과 크기가 가장 큰 변인군은 ‘개인’  $0.29(p < .001)$ , ‘폭력 경험’  $0.28(p < .001)$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또래’ 변인군이  $0.13(p < .001)$ , ‘가정’과 ‘사이버환경’이 각각  $0.12(p < .0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 변인군이  $0.08(p < .01)$ 로 나타났다. 각 하위변인군은 신뢰구간이 0의 값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효과크기의 해석은 0.1은 ‘작은 효과’, 0.3은 ‘중간 효과’, 0.5는 ‘큰 효과’로 구분한다[51]. 이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개인변인과 폭력경험은 중간 크기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가정, 또래, 사이버환경, 학교 변인군은 작은 크기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표 2. 하위변인군 별 효과크기

| 하위변인군 | k  | ES(95%CI)       | Q                     | I <sup>2</sup> | τ <sup>2</sup> |
|-------|----|-----------------|-----------------------|----------------|----------------|
| 개인    | 36 | 0.29(0.16~0.41) | 3777.06( $p < .001$ ) | 99.1           | 0.148          |
| 가정    | 22 | 0.12(0.07~0.16) | 219.77( $p < .001$ )  | 90.4           | 0.012          |
| 또래    | 11 | 0.13(0.06~0.20) | 65.94( $p < .01$ )    | 84.8           | 0.011          |
| 학교    | 17 | 0.08(0.04~0.12) | 73.30( $p < .01$ )    | 78.2           | 0.004          |
| 사이버환경 | 21 | 0.12(0.09~0.15) | 66.56( $p < .01$ )    | 70.0           | 0.003          |
| 폭력경험  | 18 | 0.28(0.21~0.35) | 337.27( $p < .001$ )  | 95.1           | 0.020          |

### 3. 출판편의 검증

메타분석결과의 타당성확보를 위하여 출판편의를 점검하기 위한 funnel plot을 살펴본 결과 출판편의가 의심되어 Egger test[52]를 실시하였다[그림 3]. 그 결과 개인, 가정, 또래, 사이버환경, 폭력경험 변인군에서 효과크기와 표준오차와의 관계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출판편의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즉, 개인, 가정, 또래, 폭력경험 예측변인으로 하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연구들이 대표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변인군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여 출판편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출판편의가 존재한 학교 변인군에 대하여 Duval과 Tweedie [53]이 개발한 추정치 가감법(trim and fill)을 실시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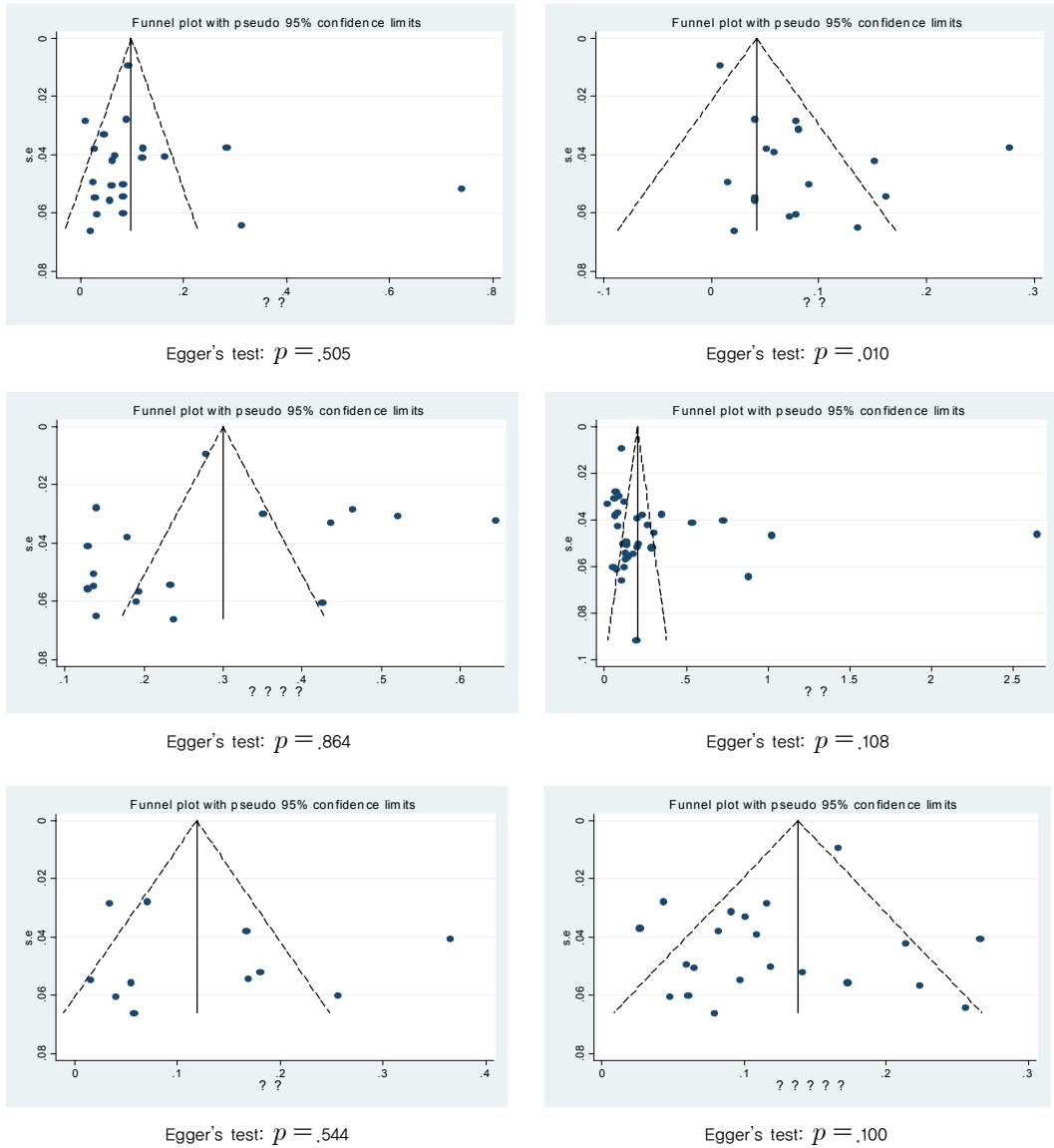


그림 3. Funnel plot & Egger's test

과, 학교변인군의 보정 전과 보정 후의 값이 같아서 보정할 연구물의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unnel plot과 추정치 가감법의 결과를 토대로 출판현의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청소년 사이버불링에 관한 국내 연구 중, 가해행동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함으로써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변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이버불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지와 학위논문 43편을 대상으로 실시된 메타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이버불링 예측변인 중 '개인' 변인군의 효과크기가 중간 수준인 0.29로 다른 변인군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공감이나 윤리의식 또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공격성이나 충동성 및 소외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성,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요인이 학교나 미디어 환경요인[23], 가정환경[19]이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서도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도덕적 인지왜곡현상이라 할 수 있는 도덕적 이탈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도덕적 가치관단을 수반하는 반사회적 또래동조 성향 또한 높아질 수 있어 온라인 또래괴롭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10]와 맥을 같이하여, 사이버불링에 취약한 개인의 특성이 주변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이버불링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Kowalski 등[6]은 사이버불링이 전통적 불링에 비해 가해 행위의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전통적 불링의 동기는 대인관계(interpersonal)에서 비롯되지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동기는 내재적 요인(intrapersonal)에서 비롯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제안했다. 즉, 사이버불링을 수행하는 행위자체가 개인적 보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사이버불링은 개인이 가진 내적 특성과 더 연관되어 다양한 변인군 가운데 개인 변인군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이버불링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폭력경험이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포함하는 '폭력경험' 변인군의 효과크기가 0.28로 나타나 개인변인군과 비슷한 중간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에서는, 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며, 더불어 오프라인에서의 폭력 가해경험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또한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증가시키며 [16],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긴장을 높게 경험할수록 사

이버불링 가해행동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54]를 지지하는 것이다. 국외 연구에서도 사이버불링 가해자와 전통적 불링 가해자 간에 발견된 유사성이 보고되었고 [30], Olweus[55]에 따르면, 전통적인 불링과 사이버불링 간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고, 사이버불링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모두 크게는 일반적 패턴의 불링(bullying)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56]. 이는 전통적 불링 가해행동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에는 '익명성'이나 '상시성'과 같이 상이한 특성도 있지만, 공격적 행동, 힘의 불균형, 가해 행동의 반복성과 같은 유사한 특성도 존재하므로[6],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여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폭력이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기제와, 피해경험이 가해로 발전되는 경로를 밝히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강조하는 결과이기도하다.

다음으로 '또래' 변인군이 0.13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비록 작은 수준의 효과크기이지만, 이러한 결과는 개인과 가정환경변인을 통제하고도 비행친구의 존재가 사이버불링 가해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다는 연구결과 [17]를 일부 지지하는 것이다. Kowalski 등[6]의 주장처럼, 사이버불링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행위의 결과를 직접 목격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보상을 받기 보다는 가해행위 자체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사이버불링 행위가 혼자서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비행친구나 또래관계로부터 받는 효과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메타분석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크기를 보였지만, 또래요인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단톡방을 활용한 카따(카카오톡 왕따) 등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2] 또래 관련 변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변인군과 '사이버환경' 변인군은 각각 0.12의 효과크기를 '학교' 변인군이 0.08로 나타나 비교적 작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부모와의 애착과 같은 가정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했던 관련 연구들과[35][57],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 중

독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및 네트워크의 특성과 같은 사이버 환경이 직접적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했던 연구를 지지한다[20][21][58]. 비록 효과크기는 작지만, 학교만족도가 낮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가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19][40][41]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대처와 예방을 위한 교육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하여 개인 변인군들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가해 청소년이 가지는 ‘분노’,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룰 수 있는 자질과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공감능력’이나,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훈련과 도덕성, 윤리의식, 인성교육이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체험적이고 청소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교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폭력경험 또한 개인변인군 만큼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비롯하여 가정, 학교 등에서 경험하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인 사이버불링으로 이어져 폭력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은 폭력문화와 그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과도 관련 지을 수 있어, 단순히 법적인 처벌이나 엄격한 통제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폭력 문화가 정보통신과 만나 새롭게 탄생시킨 사이버불링 등을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에 기반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Olweus[55, p.52]가 지적하듯, “실제로 대부분의 사이버불링이 학교 밖에서 방과 후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이버불링은 학교 환경 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또한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보고 디지털 시대 청소년의 특성과 사이버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사이버환경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가해 청소년은 피해청소년에 비해 자신의 평판이나 지위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며[6], 비대면성이라는 특징으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거나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유의하게 적다[6].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익명성, 비대면성과 같은 사이버환경 요인은 개인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완전삭제가 어렵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가능하므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서로 공격성이 증폭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환경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불링 예방 접근이 적합할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함양을 위한 교육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하나의 이유로 청소년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지각하는 익명성을 들고 있다[59]. “안전하지 못한 운전자는 사고를 일으키지만, 잘 교육된 운전자는 도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은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한다”[60, p.14]라는 주장처럼,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거나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스스로가 책임 있는 사용자로서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훈련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사이버불링이 디지털미디어에 몰입하며 성장한 청소년들이 해를 끼치려는 의도와 농담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2][14]. 따라서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역동과 청소년문화, 언어습관을 이해한다면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이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점은 청소년 스스로가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사이버불링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사이버불링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해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는 의식함양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크기 산출을 위한 상관계수( $r$ )와 표준화 회귀계수

(β) 등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이 많아 상당수의 논문을 연구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비록 연구결과에서 출판편의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향후 더욱 많은 연구들이 분석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대상 연구 대부분이 중단 자료가 아닌 횡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사이버환경, 폭력경험 변인들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인과적 해석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불링이 발생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콘텐츠 등 인터넷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2010년 이전이나 2016년 이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측에 까지 확대하여 설명하는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가 제시된 문헌은 메타분석에 사용된 연구임)
- [1] J. Juvonen and E. F. Gross, "Extending the school grounds?-Bullying experiences in cyberspace," *Journal of School Health*, Vol.78, No.9, pp.496-505, 2008.
- [2]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3] 최숙영, "사이버불링에 대한 국내의 연구 동향 및 대응 방안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35-48, 2014.
- [4] 한희정, 정혜진, "국내 사이버불링 연구 동향,"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제24권, pp.180-217, 2014.
-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16000597&md=20150616111242\\_BL](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16000597&md=20150616111242_BL)
- [6] R. M. Kowalski and G. W. Giumetti, A. N. Schroeder, and M. R. Lattanner, "Bullying in the digital age: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of cyberbullying research among youth," *Psychological Bulletin*, Vol.140, No.4, pp.1073-1137, 2014.
- [7] 이주형, 안순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에 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1권, 제1호, pp.133-157, 2013.
- [8]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 [9] M.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part 1," *On The Horizon*, Vol.9, No.5, pp.1-6, 2001.
- [10] \*김부경, 한운선, "또래동조성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339-348, 2016.
- [11] 이창호, 김경희, 장상아,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 [12]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사이버 폭력 연구의 동향과 과제: 사이버 폭력의 정의 및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3권, 제4호, pp.1581-1607, 2012.
- [13] 안화실, 박정도, "사이버폭력에 관한 국내 연구물 분석," *소년보호연구*, 제23호, pp.125-157, 2013.
- [14] V. Talwar, C. Gomez-Garibello, and S. Shariff, "Adolescents' moral evaluations and ratings of cyberbullying: The effect of veracity and intentionality behind the ev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36, pp.122-128, 2014.
- [15] \*노성호, 김소라, "자기통제력과 범죄기회를 통한 사이버불링의 분석," 한국범죄학, 제9권, 제3호, pp.3-35, 2015.
- [16] \*최진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불안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5호, pp.195-214, 2015.
- [17] \*남상인, 권남희,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23-43, 2013.
- [18] \*김은경,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9] \*최현, 백지숙,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경험에 미치는 변인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제13권, 제4호, pp.195-208, 2015.
- [20] \*김혜영, 민정식,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Cyberbullying)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권, 제4호, pp.323-333, 2014.
- [21] 이창호, 이경상, “소셜미디어 이용시간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탐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pp.259-285, 2013.
- [22] 김경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체계변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3] 유석원, 생태체계 변인이 중학생의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2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4.
- [25]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년 청소년 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2016
- [26] S. Park, E. Y. Na, and E. M.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activities, netiquette and cyberbully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42, pp.74-81, 2014.
- [27] 이지영, 권예지, 고예나, 김은미, 나은영, 박소라, “한국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심층인터뷰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53권, 제1호, pp.267-309, 2016.
- [28] J. Wolak, K. J. Mitchell, and D. Finkelhor, “Does online harassment constitute bullying? An exploration of online harassment by known peers and online-only conta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41, No.6, pp.51-58, 2007.
- [29] R. M. Kowalski, S. P. Limber, P. W. Agatston, *Cyber bullying: Bullying in the digital world*, Malden MA: Blackwell Pub., 2008.
- [30] S. Hinduja and J. W. Patchin, “Offline consequences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Vol.6, No.3, pp.89-112, 2007.
- [31] \*강세연,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사이버 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32] \*김태용, 청소년의 개인 내적 특성이 사이버불링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감각추구성향, 우울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33] \*박수현, 중학생의 사이버 언어폭력과 내현적 자기애,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34] \*이아름, 이윤주, 양현일,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언어폭력성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5권, 제6호, pp.2437-2450, 2014.
- [35] \*이향순, 부모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사이버폭력경험 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6] \*전신현, 이성식,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집단 괴롭힘 현상의 원인 모색,”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호, pp.159-181, 2010.
- [37] \*김봉섭, 박종선, 감동은, 진상기, “컴퓨터교과교육: 사이버불링 발생과 정보매체활용 간의 상관 분석-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pp.17-29, 2013.
- [38] \*이인태, “논문: 초등학생의 사이버 불링 실태와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제32권, 단일호, pp.91-118, 2012.
- [39] \*김수진,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40] \*신나민, 안화실, “청소년 사이버 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6권, 제4호, pp.1-21, 2013.
- [41] \*김종길,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학업스트레

- 스가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 연구, 제9권, 제1호, pp.47-68, 2013.
- [42] \*박옥식,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43] \*오인수,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5권, 제5호, pp.1871-1885, 2014.
- [44] \*정여진, “청소년의 모바일 SNS 사이버언어폭력 경험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45] Robert A. Peterson, and Steven P. Brown, “On the use of beta coefficients in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90, No.1, pp.175-181, 2005.
- [46] \*김소리, “심리 사회적 특성이 사이버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전통적 괴롭힘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47] \*이인혜, “청소년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사이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카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48] \*김경은, 윤혜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관련된 생태체계변인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1호, pp.213-238, 2012.
- [49] 황성동, “메타분석에 있어서 출간오류 : 의미와 분석 = 의미와 분석,” 한국 인간발달연구, 제23권, 제1호, 2016.
- [50] J. Higgins and S. Green,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Cochrane Book Series*, Wiley-Blackwell, 2008.
- [51]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ural sciences*,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1988
- [52] M. Egger, G. Davey-Smith, and D. Altman, *Systematic reviews in health care: meta-analysis in context*, John Wiley & Sons, 2008.
- [53] S. Duval and R. A. Tweedie, “Nonparametric “Trim and Fill” Method of Accoun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95, No.449, pp.89-98, 2000
- [54] \*신소라, 정의롬, “청소년의 일상간장과 인터넷 의존성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 연구, 제39권, pp.59-81, 2015.
- [55] Olweus, Dan, “Cyberbullying: An overrated phenomen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9, No.5, pp.520-538, 2012.
- [56] Olweus, Dan, “School bullying: Development and some important challenge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Vol.9, pp.751-780, 2013.
- [57] \*안수빈, 이강이, “부모애착과 또래동조성이 청소년의 SNS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SNS에 의한 일상생활장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21권, 제3호, pp.51-67, 2014.
- [58] \*최민음, 금현수, 정은정, 김효은, 이정기,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간접적·공적, 직접적·사적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어폭력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3호, pp.375-402, 2012.
- [59] Oxley, Cathy, “Digital Citizenship: Developing an Ethical and Responsible Online Cultur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hip*, 2010.
- [60] Lindsay, Julie, Vicki Davis, “Navigate the Digital Rapids,” *Learning & Leading with Technology*, Vol.37, No.6, pp.12-15, 2010.
- [61] \*구철영, 성격특성과 학교적응이 중학생 사이버 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62] \*김영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63] \*김진호,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이버특성과 영성 지능의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5.
- [64] \*김현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폭력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65] \*나혜연,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사이버불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66] \*박예슬,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67] \*박은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불링 경험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68] \*백문숙,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69] \*소리나,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70] \*신소라, *청소년의 긴장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71] \*원다훤,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댓글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72] \*유환희, *사이버불링 공격적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73] \*이아름,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 언어폭력성, 사회성이 사이버 불링 경험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74] \*정소미,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저자 소개

김 신 아(Shinah Kim)

정회원



- 2012년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석사)
- 2017년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청소년발달심리, 사이버불링, 디지털시 민성

방 은 혜(Eunhye Bang)

준회원



- 2013년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학사)
- 2017년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석사과정)

<관심분야> : 청소년발달심리, 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한 윤 선(Yoonsun Han)

정회원



- 2002년 : Wesleyan University(학사)
- 2006년 : Harvard University(석사)
- 2012년 : Univ. of Michigan(박사)

• 2013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조 교수

<관심분야> :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와 보호